AI시대, 불교는 무엇부터 해야 하나

현불논단



김응철 교수
중앙승가대

미국의 인공지능연구소인 '오픈 AI(Open AI)'는 2022년 11월 대화형 인공지능 챗봇인 '챗지피티(ChatGPT)'를 공개하면서 이 분야의 혁신적 변화를 이끌어 가고 있다. 여러 가지 논란과 편향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의 발전과 이를 장착한 다양한 로봇의 등장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고 있다.

인공지능은 반도체 칩의 성능 향상, 모방학습의 축적과 전이학습, 논리적 추론과 복합적 사고 영역으로 발전하면서 점차 인간의 활동 영역을 잠식해 가는 중이다. 이미 사회의 각계각층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업무 수행의 효율성도 매우 높아지고 있다. 중국에서는 개방된 인공지능 소스코드를 활용하여 저가형 프로그램 '딥시크(DeepSeek)'를 개발해 세상을 놀라게 했다.

오픈 AI사에서는 인공지능(AI)이 인공일반지능(AGI)으로 발전하는 과정을 5단계로 제시하였다. 시작은 대화형 챗봇이 대화형 검색엔진 기능을 통해 사용자의 질문을 이해하고 필요한 자료를 모아 주거나 요약, 번역해주는 일을 하지만, 최종 단계의 인공지능은 조직적 생태계를 형성하고 자율적 의사결정 등이 가능해진다.

이들의 예측대로 진행된다면 2030년경이면 인공지능의 기능이 인간의 능력 중 상당부분을 뛰어 넘어설 것으로 전망한다. 이렇게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교계는 어떻게 대응해야

AI 검색할 인터넷 불교사전 全無
불교아카이브 등 구축해 활용해야
AI 활용도에 미래 포교 성패 달려

할 것인가에 대한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현재 상황에서 불교계가 해야 할 일은 인공지능이 불교를 이해하고, 각종 경전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학습시키는 일이다. 실제 챗지피티로 불교자료 검색해 본 결과는 매우 부실할 뿐만 아니라 내용상 심각한 오류를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인공지능의 잘못이라기보다는 불교 자료 접근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또한 인공지능이 활용할 수 있는 인터넷 불교사전도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것도 문제의 원인이다. 더욱 큰 문제는 인공지능이 경전 원문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불교에 대한 설명이 오류투성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인공지능 시대에 불교 교학 발전과 포교 활성화를 위해서 종단 차원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권위 있는 인터넷 불교사전 구축과 더불어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에 등재되어 있는 경전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검색엔진을 제공하는 일이다.

그리고 다수의 사부대중이 인공지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인공지능의 학습과 훈련에 동참해야 한다. 인공지능이 고려대장경을 비롯한 한문경전과 한글대장경, 빨리어 및 산스크리트어 경전자료들을 비교 분석하고 내용을 추출하는 인공지능 2단계에 진입할 경우 불교학은 비약적으로 발전할 것이다.

앞으로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는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몇 십 배로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분야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불교계가 인공지능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잘 대응한다면 불교의 과학적 지혜와 철학적 사유가 미래 세대를 이끌어갈 새로운 종교적 대안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우리는 결코 멈추지 않는다"

세간과 출세간



효록 스님
다르마심리상담명상센터 대표

매년 6월, 서울 중심가에서 서울퀴어문화축제가 열린다. "우리는 결코 멈추지 않는다"라는 올해의 슬로건처럼, 이 축제는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비롯한 다양한 존재들이 차별과 혐오를 넘어 평등과 존엄을 향해 나아가는 살아 있는 외침이다.

나에게 이 축제는 단순한 문화행사가 아니다. 성소수자 불자 법회를 맡은 지 10년이 지난 지금도, 시작점에 선명히 남아 있는 하루가 있다. 10여 년 전, 나는 서울광장에서 열린 퀴어축제를 찾았다. 그러나 정작 나를 잊지 못하게 만든 건 축제가 아닌, 그 옆에서 축제를 막으려 모여든 수천의 사람들과 그들이 만든 혐오의 굉음이었다. 그들은 일부 기독교 단체에서 온 사람들이었다.

한 손엔 태극기를, 다른 손엔 동성애 반대 피켓을 든 이들은 고막을 찢을 듯한 소리로 외쳤다. "탈동성애가 진정한 인권이다" 등 혐오의 말들이 서울 도심을 메웠다. 숨이 막혔다. 2015년 봄, 나는 성소수자 불자들과 전법회관의 작은 법당에서 처음 만났다. 법회를 맡기 전, 그들을 이해하고 싶어 관련 책을 읽고 영화를 찾아보며 준비했다. 연등이 쌓인 조용한 법당은 긴장된 나와 달리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성소수자는 '특이하다'는 내면의 편견이 허상이었음을 깨달았다.

첫 만남에서 우리는 서로를 소개했다. 어색하면서도 따뜻한 시간이었다. 그들은 나를 만나기

퀴어문화축제 첫 참가 당시
기독교 단체 혐오 발언 충격
"왜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가"

전까지 15년 동안 자신들끼리 법회를 이어왔다. 하지만 정작 자신들을 깊이 소개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했다. 그래서 나는 법회 시간을 단지 설법으로만 채우고 싶지 않았다. 이후 법회는 집단 상담 형식으로 바뀌어, 서로의 목소리가 오가는 자리가 되었다.

참여자 중엔 이미 다른 종교를 가진 이들도 있었다. 가족과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신앙을 유지하거나, 모태신앙으로 살아온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그들 중 어떤 이들은 자신이 믿어온 종교 안에서 성정체성 때문에 '죄인'이나 '하자의 존재'로 낙인찍히며 깊은 상처를 입었다. 그래서 존재 자체가 존중받고 위로받을 수 있는 길을 찾다가 불교를 찾아왔다고 말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불교가 줄 수 있는 '무차별 자비'의 본모습을 다시 생각하게 했다.

우리 사회는 성소수자를 하나의 이미지로 단정 짓는다. 하지만 그들은 누구보다 평범하고, 그래서 때로는 더 조심스럽다. 자신의 정체성이 드러날까 두렵기 때문이다. 이런 두려움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왜곡된 인식 속에 있는지를 보여준다.

성소수자를 향한 공포와 거부는 무지에서 비롯된다. 알지 못하기에 두려워하고, 두려우니 배척한다. 진정한 평등과 공존은 다름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된다. 퀴어문화축제는 한결같이 우리에게 이 사실을 일깨운다.

부처님은 〈화엄경〉에서 "모든 중생은 부처가 될 성품을 지녔다"고 말했다. 우리는 다르기에 아름답고, 다름에도 불구하고 존중받아야 한다. 부처님의 자비는 어떤 조건도 묻지 않는다. 바로 지금, 모든 존재가 존엄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함께 살아갈 길을 찾을 때다.

社 說

새 정부, 기후정책 최우선 과제 삼아야

앞으로 5년 이내에 지구 온도가 산업화 이전에 견줘 2도 이상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세계기상기구(WMO)가 5월 28일 발표한 '전 지구 1~10년 기후 업데이트(GADCU) 보고서'에 따른 것으로, 연평균 지구 온도가 산업화 이전 대비 2도 이상 오를 가능성이 제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6월 3일 치러진 제21대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후보자들의 공약과 TV토론에서 기후 공약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탄핵 사태로 치러진 조기 대선임을 감안하더라도, 기록적인 폭염과 역대 최악의 산불 등 기후 재난 현상이 이어지는 시점에 지난 대선보다 후퇴한 기후 공약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2명 중 1명은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관련 정책을 요구하는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기후시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듯 이번 대선 사회 분야 TV토론에서 '기후위기 대응 방안'이 공약 검증 주제로 처음 채택됐다. 그러나 막상 토론회에선 원전에 대한 공방만 주고받은 채 구체적인 공약 제시와 논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정치권에서 미적대는 사이, 불교계를 비롯한 종교시민단체는 자체적인 기후 정책을 담은 '기후재난 극복 정책 제안서'를 성안하고 시민 홍보에 나섰다. 새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관련 정책을 면밀하게 살펴야 할 것이다.

민중불교운동을 다시 기억하자

올해는 5·18광주민주화운동 45주년을 맞는 해이자 불교 민주화 운동의 산실 '민중불교운동연합(이하 민불련)' 창립 40주년이 되는 해이다. 5년의 차이가 나지만 둘은 연관성이 상당하다. 5·18 당시 조계종 총무원장이었던 월주 스님은 교단 지도자로서는 처음으로 직접 광주에 방문해 천도법회를 봉행하고 성금을 전달했다. 이 같은 불교계의 행보는 전두환 신군부에게는 걸림돌로 보였고, 10·27법난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이어졌다.

5·18과 10·27법난은 호국불교 담론에 대한 반성과 불교자주화를 촉구하는 1980년대 민중불교운동의 계기가 됐다. 이 운동의 결정체가 바로 '민불련'의 창립이다.

1985년 진관 스님, 성연 스님, 여익구, 고은, 최연 등 출·재가자 180여 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해 창립된 민불련은 불교사회운동사의 한획을 그었다. 민불련은 창립총회부터 당국에게 불순단체로 지목돼 105명이 연행되며 출범했지만 〈민중법당〉 등을 발행하며 불교계 민주화운동을 주도했다.

민불련은 1991년 조직 정리를 선언하기까지 약 6년 동안 활동했지만, 한국불교에 끼친 영향력은 컸다. 산중에만 머물렀던 불교를 다시 치열한 삶의 현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했으며, 교단 민주화를 이루는 데도 이바지했다. 5·18부터 민불련으로 이어진 일련의 과정에는 '중생이 아프면 보살도 아프다'는 대승의 정신이 담겼다. 이 시대 다시 민불련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스님 대표 겸 편집인 : 한명우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광고국 (02)2004-8204 FAX (02)737-0698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충 청 지 사 : 010-8341-0560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강 원 지 사 : 010-7339-8688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종 단 공 고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일붕 서경보 존자 제29주기 추모다례재

대한불교일붕선교종은 세계불교초대법왕을 역임하시며 불법 홍포에 매진하신 일붕 서경보 존자의 제29주기 추모다례재를 아래와 같이 봉행하오니, 종도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일시 : 2025년 6월 4일(수) 오전 11시
- 장소 : 서울 세검정 일붕선원
- 문의 : 02)991-8175

불기 2569년(2025) 5월 28일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혜일 스님

대한불교삼론종

2025하계수련회 안내

대한불교삼론종은 종도 스님들의 화합과 종단 발전을 위한 2025년도 하계 수련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사암의 발전과 스님들의 법체 강녕을 기원하며, 많은 동참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일 시 : 2025년 6월 11일(수)~13일(금)
- 장 소 : 보현정사 (경북 경산시 와촌면 솔목길 15-5)
- 담 당 : 지화 스님 (010-3525-7190)
- 회 비 : 15만원
- 준비물 : 가사 · 장삼, 개인 세면도구, 간편한 복장 등
- 문 의 : 성혜 스님 (010-8082-9503)

불기 2569년(2025) 5월 28일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 남륜 스님

사)여래불교조계종

종도 모집 안내

사단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은 시대가 요구하는 올바른 불교 모습을 정립하고자 공익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을 창종하고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불법홍포에 앞장설 전국 종도 스님을 모집하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010-6219-4757

불기 2569년(2025) 6월 4일
여래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덕평 스님